

제주항 기본계획 재검토 되나

사드 영향 사업비 조정 향후 10년간 1조9070억 투입
 정부, 현 크루즈부두를 기능전환 운영여건 개선 방안
 도 “사업 대부분 예정대로 추진”... 9개항 시설 보강

크루즈·해양관광 중심항만으로 육성할 예정인 ‘제주항 기본계획(안)’이 재검토 될 전망이다. 사업은 대부분 추진되지만 2017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후 크루즈 수요 급감으로 제주신항의 장기적인 활용 계획에 대비, 사업비가 당초보다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4차(2021~30년) 제주 지역 항만기본계획(안)’은 향후 10년간 제주 무역항 2곳(제주항·서귀포항)과 연안항 5곳(한림항·애월항·주자항·성산포항·화순항)에 대한 외곽시설 7.2km, 접안시설 19선석, 도로 1.4km 등의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조6227억원(균특회계)으로 전국 전체 예산 37조1000억원 가운데 7.1%를 차지한다.

특히 제주항은 국내 주요 관광지

로서 크루즈와 여객부두 건설로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서귀포항과 함께 도내 생필품 및 농수산물 등의 지역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항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림항·애월항·성산포항은 LNG와 원자재(철근·모래) 등 산업화물 처리를 위한 전용항만으로 구축되며, 주자항·화순항은 해양영토 수호를 비롯한 어업질서 관리 차원에서 국가관리 항만 개발·운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재검토 대상인 제주항은 당초 사업비 2조1727억원(재정 1조6228억원·민자 549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드 등에 의한 수요 감소로 사업비는 1조9070억원으로 조정, 당초보다 국비에서 2657억원(12.2%)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과 더불어 현재

화물부두로 임시사용 중인 크루즈부두를 접화부두로 기능을 전환해 운영여건을 개선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파악된다.

제주항의 당초 사업계획은 접안시설 13선석(여객 9·크루즈 2·기타 1), 외곽시설 4.7km, 도로 1.3km, 해경부두 1km 등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항의 경우,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어항구 내 보도교 2곳을 반영할 예정이고, 보도교 1곳 추가를 검토 중”이라며 “사드 영향으로 인한 크루즈 여행객 다변화 전략을 통한 내실 강화 부분이 기본계획에 적용되면서 기본계획이 다소 조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항만의 중장기 비전과 개발계획을 담은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앞으로 10년간 37조1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디지털 항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안전·건강 수능을 위해... “일상 잠시 멈춰달라”

이 교육감, 거리두기 호소
 오늘 예비소집 수험표 배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이 “일상을 잠시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1일 서한문을 내고 “수능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준비한대로 수능을 잘 치르고 설레는 내일을 맞길 바란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다. 자신을 믿고, 더욱 빛나는 꿈의 여정을 걸어가기 바란다”고 수험생을 응원했다.

도민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수능은 도민들의 참여로 완성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고, 일상을 잠시 멈춰달라”며 “도민들이 수험생들을 지키는 백신이 돼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수능을 치르기 위한 준비도 차례로 진행되고 있다. 수능을 이틀 앞둔 1일에는 도내 17개 시험장에 배포될 수능 시험지가 제주도교육청에 도착했다. 시험지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 뒤 시험 당일인 3일 아침 각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순찰차를 동원해 경비를 지원한다.

이어 2일에는 예비소집이 이뤄지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옥외에서 거

리를 확보한 뒤 수험표가 배부된다. 또 방역 문제로 시험장을 미리 둘러보는 행위가 금지되고, 대신 시험실 배치도와 수능 당일 유의사항이 담긴 유인물이 수험생에게 전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수험생들은 동요하지 말고 시험 준비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수능이 끝나면 대학원서 접수 등 향후 일정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능은 도내 17개 시험장(일반 14·별도 2·병원 1)에서 총 6554명이 응시하며, 감동·방역 인력은 1820명으로 투입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수능을 이틀 앞둔 1일 제주도내 17개 시험장에 배포될 수능 시험지가 도교육청에 도착해 관계자들이 꼼꼼히 살피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언론재단 설립’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현 문체부 권한 제주도로 이양
 기관 광고대행 효율 증대 취지

제주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가칭)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이 추진되며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인 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및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도로 이양할 것을 제8단계 제도개선 신규 추진 과제로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문체부의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고비와는 별도로 시행료 10%

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 부터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 같은 대행수수료를 통한 수익에도 도내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능력이 미미하고 지원 규모도 적어 그동안 지역언론에서의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

특히 광고의뢰기관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법정 관할기관인 시·도가 아닌 문체부로 지정해 ‘신문법’과 ‘정부광고법’ 간의 법제상 부정합이 발생하고, ‘정부광고법 시행령’상 광고 대행수수료 10%를 지자체 및 지방공공 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수수료만큼 광고비를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 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3월 11일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0%씩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대해 “독점 대행기관인 언론재단이 특별한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를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광고 업무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 신규 과제를 제출했다.

백금탁기자

과도한 제주 특수배송비 해결 ‘국민청원’ 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이달중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김경숙 제주대 명예교수)가 과도한 제주지역 특수배송비와 관련해 합리적 제도 마련을 위한 국민청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12월중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청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비자 연대를 청원단체로, 제주도는 청원동참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택배 이용 시 부과되는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공개해 관련업계간 가격경쟁을 통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했다.

실제 오픈마켓 12곳과 흡소핑을 대상으로 판매중인 8개 품목군(915개 제품)에 대한 배송비 비교조사 결과, 지난해 평균 3903원에서 올해 2300원으로 배송비가 인하됐다.

도는 또한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

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지난해 12월 특수배송비 사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고시 개정을 도출했다.

하지만 도의 이 같은 노력에도 관련법령 정비 등 후속절차 없이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국민청원에 나서고 있다. 도서산간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특수배송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담아 정부의 입법을 확인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오직 제주콩, 천일염에 불을 더한 수제두부

순수한 두부

전래 제주 손맛 그대로

가맹점 모집

본사 및 가맹점의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사의 체계적인 매뉴얼을 제공하여 초보자 창업이 가능합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방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서문로 37-11(용담일동)
T. 064) 747-1361

2F

수제두부전문점

1F

베이커리 카페

용담동 310-11번지, 이 자리에서, 서문두부는 반세기 동안 새벽녘마다 불을 밝히고 콩을 삶으며 두부 그 이상을 꿈꿔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서문두부의 '꿈', '순수한 두부'를 펼칩니다. 오직 제주콩, 천일염에 불을 더해 매일 신선한 두부를 만들고, 그 순수한 두부로 두부식빵에서 보말 순두부까지 맛의 향연을 펼칩니다. '뭘 먹지?'하는 고민은 '순수한 두부'에게 맡겨주세요, 몸이 편안해지는 건강한 한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반세기, 이 자리에서, '순수한 두부'가 새벽녘마다 불을 밝히고 건강한 한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